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253>

JCCT 2018-2-31

강변공간의 문화축제 조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의 적용

Application on the Convergence Technology for Culture Festival Composition of Riverside Space

연상호*

Sang-ho Yeon*

요약 청풍호수는 한국 반도의 중앙에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 년에 충주 수력발전댐 건설에 의해 형성 청풍호수는 지금은 지난 30 년 동안 큰 인공 담수와 사이트로 변화되어 있다. 최근 제천시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자연 치유 리조트와 엔터테인먼트 공연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교에서 원격탐사 기술과 현장 조사 계획을 사용하여 지리 조사 및 분석의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과 디지털 지형 분석 및 현황 분석을 사용하여 컬러 맵을 통합하고, 강변 공간에서 미래의 비즈니스 및 천연자원의 조사를 통하여 브랜드의 시설과 이벤트를 구상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문화축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기술융합을 적용 실험하여 미래의 문화융합에 의한 참여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청풍호수, 자연치유, 강변공간, 문화축제

Abstract Cheongpungho number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outh Korea Jecheon Peninsula, Chungju cheongpungho be formed by hydroelectric dam construction in 1984, now has been changed to a large man-made freshwater sites during the past 30 years. Recent Jecheon government is developing natural healing resort and entertainment performances for the future, in comparison to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region using remote sensing technology and site planning was conducted in geographic research and analysis, and as a result, we have a very effective to incorporate the color maps using aerial photography and digital terrain analysis and usage analysis to prove and was in the riverside area for the future of the business and the research proposal facilities and events of the brand, to be more multi-cultural festival form apply new high-tech fusion experiments suggest new direction for future tourism.

Key words :Cheung-Pung Lake, Natural Healing, Riverside Area, Cultural Festival

1. 서론

제천의 청풍호(Cheongpungho)는 1984 년에 준공된 충주 댐의 건설로 생겨난 남한강과 함께 형성된 인공 담수호입니다. 주변의 뛰어난 자연 환경과 수리시설 구

조물이 다양한 형태로 삼십년이상을 설치되어 왔으며 아직도 많은 활용하는 밤에 해안가의 멋진 전망과 함께 축복하는 것은 필요추가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의 환경에 대해, 조경 디자인, 디자인 개선과 농촌 계획 공의 개발에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성 요

*정회원, 세명대학교 토목공학과, 공간정보기술사
접수일: 2017년 11월 18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5일

Received: November 18, 2017 / Revised: January 10, 2018
Accepted: January 25, 2018
*Corresponding Author: yshkgi@hanmail.net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myung Univ., Korea

소 및 개별 요소 제안된 연구의 디자인에 의해 통합된 접근 방식에 안내신호 시스템과 농업 개발 계획에 따라 거리 가구 분류 및 접근, 산 마을 관광 정보 시스템과 공공 시설을 위한 도로의 전체적인 건물과 같은 보색 계획 및 개발 계획의 기존 가이드 라인의 배치 등 각 부문에서 지역 조건에 적합한 시설, 주변 자연 환경의 생태적 공간 계획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호수가 복합된 강변 공간은 보존하면서 자연환경과 친환경 디자인 방향을 첫 번째 고려 사항으로 염두에 두면서 조화로운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문화관광과 체험관광의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하며, 전체의 자연경관적 요소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고객서비스와 최대효과를 도출하는데 있으며 몇 가지 제안된 새로운 강변 축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역특성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문화관광의 융합적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다.



그림 1. 연구대상지역 (제천시 청풍호반)
Figure 1. Research Entire Map (Jecheon Cheongpung)

2. 연구대상 지역분석 및 구상

청풍호는 남한강 상류에 해당되는 곳으로 동북영월 지역의 동강을 거쳐서 단양8경 주위를 휘감아 돌고 제천시 행정구역에 이르러 비로소 거대한 청풍호반을 이루게 된다. 원래 이곳은 청풍면의 중심지역이었으나 1985년부터 충주댐의 담수로 인하여 거대한 호반을 포함하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청풍호 관광의 새로운 수변 풍경 주변의 접근 시설과 새로운 공연 무대가 만들어져서 최고의 장소인 청풍의 자연경관 주변의 자연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자연 치유로의 건강한 청풍 음악 축제는 영화보다 더 리얼한 축제가 될 것이고, 4월의 벚꽃 축제와 관련한 직접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꽃길걷기와 수변공간 둘레길은 다른 지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제천지역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변공간의 상황에 기존 시설의 간접 배치를 사용하여 입체지형의 영상시각화 브랜드 항목을 끌 수 있고, 무대를 수변과 이웃하여 배치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레이저 및 새로운 조명을 사용하여 Night life을 활성화 하여 민속 문학, 숙박, 관광, 정보 통신 인프라, 공간 방향, 시각 디자인, 광고 및 기타 홍보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융합의 상품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각 전문 주제 진도출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솔루션이다. 관광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밤에 수변에 관한 빛의 주제를 작성하고, 자연경관에 대한 빛의 조명은 전체의 대상이 아닌 빛의 고려에 대한 특별한 디자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청풍지역의 독특한 랜드마크를 생성하여 빛 개념의 테마가 흐름을 표현하는 특별한 빛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주요 매력의 구조적 특성의 전반적인 계획과 리듬 조화의 형성에 관한 조명 빛의 세기의 커플은 빛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청풍대교와 지역 문화재의 혼합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강변가를 시물레이션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것도, 밤, 경치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음악, 음악 분수 레이저 홀로그래피 아이돌 공연을 마련 할 수 있다.



그림 2. 청풍호반의 위성원격탐사영상
Figure 2. Satellite Image of Cheongpung Lake



그림 3. 청풍호반 자연경관(청풍대교 중심)
Figure 3. Natural landscape(Cheongpung Bridge N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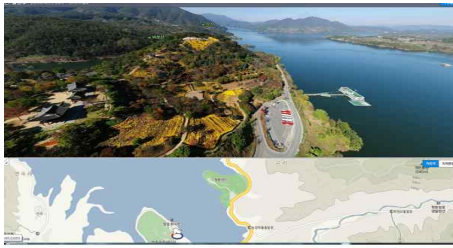


그림 4. 청풍호수가 보이는 문화재 단지
Figure 4. The Cultural Complex near Cheongpung lake

3. 청풍지역의 문화와 융복합 기술적용

천혜의 비경을 갖추고 있는 청풍면의 청풍리조트 주변을 대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를 만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국내의 자연 경관을 유람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그 결과, 점차 관광객의 수요가 줄고 하루정도 관광코스에 머물러서 수익성 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오랫동안 보는 것은 지루하기 마련이다.

주변의 천혜의 비경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특별히 야간관광이 가능한 상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첨단 기술의 융합기술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것이었다.

지금의 시대에 맞거나 약간 앞서갈 수 있는 지역문화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다. 일반적인 사실의 전지나 역사관 보다는 좀 더 모바일과 쉽게 연계가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인터넷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이버관광에서 눈과 귀로 듣고 함께 현장에서 관객이 되어 참여가 가능한 문화기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고전적인 스토리텔링과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빛을 이용한 세상을 환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가계의 유상신인저와 황조우의 송성가무쇼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과 유희가 결합된 레저관광 중에서 첨단 기술이 통합되어져서 보여지는 현대판 사극은 종합예술인 영화에서 늘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보일 수 있는 2시간의 인상유저쇼와 송성가무쇼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의 문화융합적인 상품의 개발과 시연은 개인이 시도할 수는 있지만 편견이나 자아도취 형태로 변질 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

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가미되어진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이곳 청풍호 주변의 천혜의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우리 문화의 스토리텔링이 가장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과 창작 미디어 기술이 융합되어진 기발한 문화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시연할 수 있어어만 장가계의 인상유저쇼를 능가 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강변문화축제 실험

1. 청풍호반 지역분석(SWOT)

청풍호반 일대는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요충지이자 옛 역사의 다양한 흔적이 남아있는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여러 가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으나 감성 인프라의 부족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관광활성화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강점(Strong)으로는 자연형 자원, 조성형 자원, 역사문화자원, 스포츠형 자원이 충북내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금수산, 월악산 국립공원이 둘러싸고 있어 산지경관이 뛰어나고 송계계곡과 충주호 등 수변경관이 풍부하고 매우 뛰어난 곳이다. 단점(Weak)은 이용객의 보행을 돕는 수변도로 및 강변의 보행자 전용도로 거의 없고 자드락 길도 대부분 산길로 짜여 있어 장애인이나 어린이 및 노인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역사성 등을 알리는 특별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회측면에서 보면 남동쪽으로는 소백산 국립공원이 연계되어 있고, 남서쪽으로는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매우 넓은 공원을 연계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금수산을 끼고 흐르는 남한강 본줄기가 청풍호반으로 흘러들어 커다란 호반을 이루다가 일부는 충주댐 방향으로 이동해가기 때문에 물위에서는 한강 유람선이 노닐 수 있고, 여러 동산을 연결하면 케이블카로 하늘 위를 나르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강변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위험(Threat)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경관과 공공장소에 대한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과 상품성에서의 시민의식의 결여가 있고, 수변공간의 문화적 활성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결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SWOT분석을 토대로 청풍호반에 대한 지역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청풍리조트 일대에 구축한 인프라를 살려가면서 스포츠 레저 상품을 개발하고, 이곳의 최적 브랜드를 개발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풍명월의 본향을 깊이 감상하고 즐기고 쉴 수 있으면서 힐링이 가능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최적지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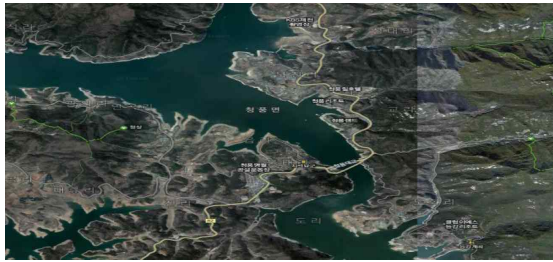


그림 5. 우주위성에서 바라보는 청풍호반 중심부
Figure 5. Jecheon Cheongpung Lake Area from Space

2.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문화적인 활용방안

청풍호반을 둘러싸고 있는 수변공간의 도로는 지방국도와 마을길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천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이 있으며 모두 봉양역과 제천역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으므로 대전과 서울에서 약 2시간이내이면 열차로 제천역에 내려서 곧바로 15분이면 청풍리조트에 도착할 수가 있다. 현재는 열차의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렌트카나 셔틀버스를 일정한 장소까지 이동시켜줄 필요가 있다. 약 8km의 거리이므로 금성리나 중전리까지 시내버스가 자주 왕래한다면 그곳에서 배를 이용하여 청풍리조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변산책이 가능한 전용보도를 신설하여 약 4km의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도로의 시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예산이 충분하거나 약 100억 정도의 관광투자를 유치한다면 전국유일의 호반 수변공간 힐링길 (모노레일이나 데크길)를 자연석과 목재를 이용하여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

이미 조성해놓은 청풍호반 주위의 7개의 자드락길은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재조성하고, 필요한 인문사회학적인 문헌조사와 향토사학 및 풍속을 연계하여 수변공간 힐링길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

래전부터 풍광이 뛰어난 제천10경은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가장 흥미있는 곳이므로 제1경의 의림지와 제2경의 박달재는 오전관광코스라고 하고, 제9경의 탁사정과 제10경의 배론성지는 오후 관광코스라고 하여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으며, 제1경 의림지 관광 후에는 대학 측과 협의하여 세명대학교 캠퍼스 유람코스를 연결하여 경험하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의 코스가 될 수도 있다. 제10경의 배론성지는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의 전파시에 순교지로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곳에 조용한 생태민박촌을 건설하여 연계하여 머물게 한다면 아주 의미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제3경의 월악산과 제7경의 송계계곡은 한수면에 있으므로 등산을 하거나 계곡을 거닐고 휴식을 원하는 방문자에게는 조용한 곳에 목재로 된 펜션촌을 지어서 숲과 언덕에 위치하도록 하여 호텔보다는 자연속의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제5경의 금수산과 제6경의 용하구곡, 제8경의 옥순봉은 모두 청풍유람선을 타고 간접적으로 3시간이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므로 제4경의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하고 나서 인근에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은 이미 만들어진 문화상품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문객이면 쉽게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으로 개발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항공사진과 비교해보는 청풍호반 중심부
Figure 6. Aerial Photo compare Satellite Image

3. 한국형 자연경관 예술축제 실현방안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청풍호반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은 바로 빛과 바람과 물과 불의 축제일 것이다. 부산의 광양대교와 한강 잠수교의 불꽃축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백제의 금강해전을 보여준

부용제, 안동 하회마을의 줄불놀이, 강원도 양양의 연어 축제처럼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전통적인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서 특화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제천 청풍호반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크게 돋보일 수 있는 불과 물과 빛을 이용한 브랜드 문화상품을 구상하여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하여 수변공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디자인하였다. 청풍호반의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나 풍속, 민속 문화를 조사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숙박시설건립, 관광, 정보통신 인프라, 공간연출, 시각디자인, 광고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분야별 현황과 솔루션을 제시하여 융합하도록 하였다. 불빛과 달빛을 주제로 하는 수변공간 연출을 위하여 야간 관광자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징적인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필요시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개별적인 디자인이 아닌 전체적인 대상지의 빛 환경을 고려한 빛의 테마를 통한 컨셉을 도출하여 흐름이 있는 자연스러운 빛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명연출의 강약을 두어 빛의 리듬감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인 구조적 특성이 강한 청풍대교와 청풍문화재단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빛 연출을 실시하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경관 뮤지컬 및 레이저 음악분수와 홀로그래피 아이돌 공연 등도 추가하여 수변 공간에 배치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그림 9. 수변공간 보행자도로 조감도 디자인 구상
 Figure 9. Riverside Road and Perspective Design

주간에는 산책길 및 관광길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당한 생태적인 요소를 살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건강과 힐링체험이 가능한 전용길로 개방해서 야간 수변경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변공간의 감성 조명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한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장소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조명의 색채 및 조도의 변화를 이용 시간 및 계절별 인터랙션을 연출하여 서정적, 체험적 공간 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린 친환경 체험공간에 최우선을 두고 수변경관을 감상하면서 수변 도로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정차하는 제천역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노레일을 구상하여 청풍호반의 수변공간을 둘러보도록 개발해가는 것이다. 제천역에서부터 청풍문화재단지까지의 약 20km의 청풍호반 모노레일은 주간에 둘러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이미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고 자연지형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키가 낮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장애 디자인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함을 목표로 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가로경관요소 및 물리적 배리어를 제거하고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친환경 디자인으로 환경문제 의식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을 주제로 친환경 윤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 디자인은 트렌드를 떠나 소재, 스타일 및 심미적 기능이 환경친화성과 어우러진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것

III. 문화융합 구상 방안

1. 수변공간 배치계획 및 강변길 조성



그림 7. 보행자도로조성 및 시설배치계획(5.7km)
 Figure 7. Walking Road map and Facilities Layout

이다. 세번째로 인터랙티브 디자인으로서 테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유기적 결합으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하여, 멀티미디어 매체가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하는 과정을 사용자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공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영역의 콘텐츠와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 모색하는 것이다.



그림 10. 수변공간의 손쉬운 접근방식/데크
Figure 10. Riverside Approach using Deck Method



그림 11. 그린관광농업과 디자인의 연계
Figure 11. Connection with Green Tour Agriculture and Design

2. 생태마을 민박촌 조성 및 경관 재조명

매년 청풍문화재단지에 입장하는 방문객은 약 30만 명으로 관람시간은 약 1시간30분 가량이다.(제천시 청풍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보고서 참조) 대부분 수몰이전의 청풍면에 소재하던 옛 가옥과 관청 및 유물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성벽과 전망대에 올라 둘러보고 나오는 것이 전부이다. 대부분 인근 단양이나 영월 및 충주로 여행하는 단체가 버스로 이동하다가 둘러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곳에 남아 천혜의 비경을 바라보고 다른 관광지를 보기 위하여 인근방에서 숙박을 하려면 다양한 숙박시설이 충분해야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고 개인펜션과 리조트를 이용해야하는데 요즘도 비싸고 무려한 저녁시간을 보내야하기에 머무르지 않고 단양이나 충주, 원주, 영월 등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다. 그곳에 옛 조상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향토 민박촌이 있다면 하루저녁이라도 그 경험을 해보려고 할 것이다. 약 30년전에 충주댐 건설로 약 인근에 있던 55개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자 모두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했고 수백년의 정든 고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수천 명의 마을주민이 정든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자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도시나 마을로 함께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들의 고향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방법은 새로운 개념의 옛 마을로서 청풍호반의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삶의 생존과 수익성이 보장된 생태마을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현대 첨단 건축기술과 전통문화가 이곳에서 만나서 전통적인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백년의 역사를 간직하던 마을이 다시금 몇 곳에 생겨나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우선 향토 민박촌 조성을 목적으로 숲이 우거진 곳에 농장이 있고 옛 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시골학교가 있고, 마당놀이가 있는 약 30호의 민박집을 10여군데 각기 테마를 주제를 구상하여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은 나이든 촌장이 있고, 일 잘하는 이장이 있고 소리 잘하는 소리꾼이 있고, 음식 잘 만드는 아낙들이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하여 여럿 집이 입주하도록 하고, 외부 방문객이 머무르며 전통마을을 경험할 수 있는 웰빙과 힐링의 테마를 개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건축은 제천시와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약 50억 정도를 조성하여 시설 인플라를 만들고 서울과 제천 등지에서 우선 신청자를 선별하여 시작해보는 것이다. 마을 주민 인구는 약 100명으로 필요시에 제한을 두고 조금씩 확장되 마을과 마을 간에는 주제가 명확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일반 논밭농사를 짓거나 소득 작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관농업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농지에 바로 화초를 경작하는 것이다. 기르는 기쁨과 바라보는 기쁨을 모두 경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관 재구성이다.

3. 수변 공간 랜드마크 및 강변리조트 재구성

영국 런던에는 버킹검 궁전 외에도 그리니치 천문대가 꼭 들리는 관광명소이고, 파리에선 무엇보다도 에펠탑



그림 12. 야간의 시설공간 재구성
 Figure 12 Riverside Structure Recomposition for Night time



그림 13 계절별 수변공간의 재구성
 Figure 13. Riverside Space Redesign for Seasonal Culture events of Jecheon Cheongpung Resort



그림 14. 조각품을 이용한 랜드마크
 Figure 14. Landmark by use of Sculpt



그림 15.싱가폴의 물고기사자상과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Figure 15. Landmark of Singapore's Merlion and Brazil's

과 루브르 박물관이 그 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다. 뉴욕은 엠파이어스태이트빌딩과 자유여신상, 북경에는 만리장성과 천안문이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지 랜드마크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지만 무엇보다 요즘에는 27개의 올레길이 제주를 보여주는 랜드마

크가 되고 있다. 제천에는 박달재와 의림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청풍호반에는 무엇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커다란 호텔이나 리조트가 랜드마크가 될 수 없는 것은 역사성이나 예술성, 문화적가치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거나 축제를 브랜드화시켜 무형의 랜드마크를 창조하기도 한다. 그 지역을 연상하면 항상 떠오르는 대표적인 명소나 이벤트가 바로 그것인데 청풍호반에는 그것이 없다. 천혜의 경관을 보여주는 청풍호반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창작해보는 것은 또 다른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연상하면 탈춤과 더불어 탈춤을 추는데 필수적인 가면을 전세계에서 수집하여 모두 볼 수 있는 가면박물관이 있다. 가면박물관에 가면 전세계의 모든 가면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하회탈을 써볼 수 있는 이벤트도 경험할 수 있기에 유네스코가 2012년 한국에서 10번째로 세계적인 유산으로 지정한 세계인류문화유산에 등록 될 수 있었다.

이곳에 가면 축제기간에는 하용대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줄불놀이를 저녁내내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주변의 풍경과 경관이 훨씬 뛰어나고 접근도 용이한 청풍호반에서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연관된 이벤트나 랜드마크를 보고 싶어도 아무런 문화관광상품이 없는 것 같아 무척 아쉽기만 하기에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고증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구상중인 청풍호반 강변공간의 문화융합
 Figure 16. Considering on Convergence Culture of Riverside Space in the CheongPung Lake

IV. 전망 및 결론

지금까지의 청풍호반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적인 디자인과 시설 및 주간과 야간의 자연관광상품과 야간의 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과의 문화융합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체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더라도 시/군의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난 수십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설치하고 진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반복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을 방문자 필요와 개발자의 예측에 의하여 다시금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여 먼저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설치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자치행정과 대학교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모여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회의하고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함께 앞서가지 않으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늘 뒤처지고 낙후되어서 미래를 선도하지 못하여 늘 가난하고 힘없는 지자체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곡간에 쌓아놓은 양식이 없으면 지혜를 모아 다른 곳의 곡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곡간으로 부의 양식이 흘러들어오기 마련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문학의 전통과 첨단기술의 공학적인 융합을 통하여 전공이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솔루션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청풍호반의 자연경관과 수변공간을 연구대상지역으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시도하였다. 향후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지속적인 회의,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타시군의 브랜드화 성공 노하우, 외국의 여러 브랜드 사업화를 문헌상으로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여러 사례를 검토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크고작은 강변의 수변공간 여건에 적합한 국내외의 자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최적 브랜드를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련자치정부는 청풍호반과 같은 수변공간의 일대를 특별관광지구로 지정하여 강변의 환경에 적합한 IT 기술과 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천혜의 비경을 보여주는 자연경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객의 의견과 불편을 수용하여 최적의 브랜드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주간관광 및 체험은 현재의 관광상품을 다시 패키징화하고 이것을 자연경관과 연계할 수 있는 수변공간의 제조사와 활용방안을 매년 분야별로 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야간관광은 야간에 체험할 수 있는 야간형 청풍호반 유람선을 개발하고, 주변의 호반과 둘러싸인 산과 멋진 교량을 조명경관화 하여 무대배경으로 하여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ICT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물과 불과 빛을 이용한 문화축제를 매 주말이나 기념일에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이미 만들어진 무관심의 브랜드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적인 이야기가 포함될 수변공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화된 브랜드 상품개발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ang-ho Yeon, Young-wook Lee(2013), "Implementation of Ubiquitous based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System", II BC. 13(2), pp239-244 (연상호, 이영욱. 2013. 유비쿼터스기반 건설현장관리시스템 구현. 인터넷방송통신학회지 13(2). 239-244)
- [2] Tae-wok Gang, Chang-hee Hong, J.R. Hwang, H.S. Choi (2012), "The External BIM Reference Model Suggestion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BIM and GIS", Journal of KSIS, 20(5), pp. 91-97. (강태욱, 홍창희, 황정래, 최현상. 2012. BIM과 GIS간 정보 상호 운용을 위한 외부 BIM 참조모델제안.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5), 91-97)
- [3] Sang-ho Yeon, Myung-hee Cho, Jin-Deuk Lee(2002), "Introduction of Remote Sensing", Kumi Book Publishing. (연상호, 조명희, 이진덕. 2002. 원격탐사입문. 구미서적)
- [4] Sang-ho Yeon(2010), "A Study on the Application Technique of 3-D Spatial Information by

- Integration of Aerial Photos and Laser data”,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urveying and Photogrammetry, 28(3), pp.385-392 (연상호, 2010. 항공사진과 레이저 데이터의 통합에 의한 3차원 공간정보의 응용기법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8(3), 385-392)
- [5] Sookuk Park, Jin Kim, Ki-ljae Lee, Myunghee Cho (2014) "Analysis of Land Use Change Within Four Major Areas Using High Resolution Aerial Photos : The Case of the Nakdong River Basi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Studies (박수국, 김진, 이길재, 조명희. 2014.)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이용한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 분석. -낙동강 유역을 사례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4). 171-188)
- [6] Michel Morgan, Ayman Habib, 3D TIN for Automatic Building Extraction from Airborne Laser Scanning Data, University of Ohio State
- [7] Michel Morgan, Ayman Habib(2008), "3D TIN for Automatic Building Extraction from Airborne Laser Scanning Data", University of Ohio State
- [8] E.Steinle, F.H. Oliveira(2008), "Assessment of Laser Scanning Technology for Change Detection in Buildings", University of Karlsruhe Institute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 [9] F. Rottensteiner and Ch. Briesse(2003), "Automatic Generation of Building Models from LiDAR data and the Integration of aerial images", ISPRS, Vol. XXXIV, Dresden
- [10] Yong Hu(2003), "Automated Extraction of Digital Terrain Models, Roads and Buildings Using Airborne Lidar Data", Geomatics Engineering, UCGE Reports Number 20187
- [11] E.Steinle, F.H. Oliveira, "Assessment of Laser Scanning Technology for Change Detection in Buildings", University of Karlsruhe Institute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 [12] F. Rottensteiner and Ch. Briesse, Automatic Generation of Building Models from LiDAR data and the Integration of aerial images, ISPRS, Vol. XXXIV, Dresden, 2003